

第2回 日合同古代史 심포지엄

—韓國通信使의 발길을 따라—

송 상 용 <韓國科學著述人協會 副會長>

김포를 떠난 비행기고 대구를 지났다. 機長의 안내가 끝나기가 무섭게 南海가 보이더니 이내 일본 서해안이 눈에 들어왔다. 지도에서 제주 비슷한 거리인 줄은 알았지만 55분만에 福岡(후쿠오카)에 내리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福岡은 생각한 것보다 컸으나 거리가 깨끗하고 불비지 않아 좋았다. 공항에서 15분밖에 안걸리는 시내로 들어와 뉴오다니호텔에 여장을 풀었다.

저녁에는 중국요리점 大觀苑에서 연사들이 교환하는 만찬이 있었다. 일본측에서는 江上波夫(東京大), 田村圓澄(九州大), 國分直一(梅光女學院大), 上田正昭(京都大), 山尾幸久(立命館大) 다섯분이 나왔고 한국측에서는 延世大 閔泳珪교수와 나였다. 文化財研究所 金正基소장이 공무로 참석할 수 없었던 것이 유감이었다. 그 대신 나는 아내를 동반했다.

第2回 日韓合同古代史심포지엄은 1982년 11월 5, 6일 福岡電氣홀에서 열렸다. 毎日新聞社와 日韓古代交流史研究會가 주최하고 국제관광공사와 日本交通公社, 古代文化邪馬台國觀光루트協議會가 후원한 이 심포지엄은 2년전 시작되어 東京와 경주에서 열렸고 내년 3월에는 서울에서 있을 예정이다. 심포지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나 청중은 한일고대사에 관심을 가진 일반시민들이다. 이번에도 일본 전국에서 약 5백명이 등록했는데 한국에서는 한사람도 없었던 것이 문제점이었다.

田村(다무라)교수 사회로 시작된 심포지엄 베틀 閔泳珪교수는 개회인사를 통해 두 나라의 속담을 인용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하고 교과서문제에 언급 저급한 민족주의를

지양해야 한다는 함축성깊은 얘기를 해서 박수를 받았다. 강연은 騎馬民族說로 유명한 江上(에가미)교수부터 시작했다. 그는 30여년전 자기가 동북아시아계 기마민족이 한반도를 거쳐 일본을 정복, 大和정권을 수립했다고 주장했는데, 그뒤 나온 고고학적·역사학적 새 자료들이 이를 확고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불교사학자 閔泳珪교수는 「九山禪門南宗論存疑」란 제목으로 唐에서 禪을 받아들인 신라와 일본의 시대적 배경의 차이를 설명했다. 山尾(야마오)교수는 石上神宮의 七支刀는 백제왕의 俊王에게 바친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국교수립을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나는 지난 10년 동안의 瞻星臺 연구성과를 요약 소개했다. 일본 말을 모르는 나는 영어로 발표했고 통역이 귀마랐다.

每日계 RKB TV의 젊은 여기자가 인터뷰를 청해 왔다. 한국과 九州는 2백만년 전엔 붙어 있었고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웠으므로 고대의 문화교류의 철저한 연구가 앞으로의 두 나라의 우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NHK 해외방송 책임자(한국인)와도 잠시 인터뷰했다. 질문은 교과서문제, 皇國史觀에 집중되었다. 한국말로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을 부드럽게 이야기했다.

저녁에는 福岡東急호텔에서 파티가 있었다. 일반청중도 함께 어울린 이 자리에서 한국말을 조금 하는 전자기구 서비스맨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기뻐다. 일본 고전무용 공연이 있었고 때마침 그곳에서 있었던 釜山展에 온 한국민속무용단이 우리의 춤과 노래를 보여 주어 흥을

돌우었다.

이튿날도 오전 내내 발표가 계속되었다. 먼저 上田(우에다)교수는 일북 雅樂의 근원이 한국이라는 것을 시원히 밝혀본 청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민족학자 國分(고구분) 교수는 倭의 기원을 따지면서 한반도 이외에 남부 중국의 일본문화에 대한 영향을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金正基소장의 슬라이드강연 「新羅의 伽藍」은 田村교수가 대독했는데 청중의 요청으로 슬라이드를 한번 더 보여 주기도 했다.

오후 토론은 발표자들의 보충설명이 있는 다음 서면으로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2시간반 계속되었다.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감사들의 성실한 답변으로 열기를 떠었다. 질문 가운데는 한국말을 배우고 있다는 젊은 기상대 직원의 침성대의 구조에 관한 것도 있었다. 일본측 강사들도 모두 침성대에 대해 한두마디씩 거들었다. 5박 이틀 계속된 심포지엄에서 거의 자리를 뜨지 않고 열심히 필기하는 청중의 진지한 모습은 인상깊은 것이었다. 일본에서 고대사부가 대단하다는 것을 들어왔지만 그런 수준 높은 아마처들이 많다는 사실이 부럽기 짝이 없었다.

그날 저녁은 九州大學 考古學研究室의 西谷正(니시다니)교수가 찾아왔다. 그는 40 초반의 쟁쟁한 소장학자로 서울에서도 연구한 일이 있고 완벽한 한국말을 구사하는 한국통이었다. 그는 우리 내외를 한국식불고기집 「南山」과 단골술집 「도끼」로 안내해 밤늦도록 우리말로 담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나중에 가 보았지만 그의 연구실은 九州 일대에서 발굴한 유물과 세계 각국에서 모은 방대한 자료로 차 있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심포지엄이 끝난 뒤 다섯 팀으로 나누어 가는 연수여행에서 우리는 對馬, 壘岐를 택했다. 일본사람들도 좀처럼 못가는 곳이어서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일행은 20명, 그 가운데 교포 한 분을 포함, 한국사람이 넷이다. 11월 7일 아침 福岡를 떠난 日本近距離航空 소형기는 53분만에 對馬공항에 내렸다. 뜻밖에도 공항에는 한글로 쓴 환영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유지들이 태극기와 꽃다발을 들고 맞아 주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공중에서 내려다 본 인상이 울릉도처럼 산으로 덮인 섬이더니 과연 88%가 산이라 했다.

쓰시마(對馬)는 그 이름부터 두 섬(上島, 下島)에서 왔다지만 한국 남해안에서 53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쾌청한 날은 보인다는데 어쩌다 일본땅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안내를 맡은 郷土史家 高雄씨는 서투른 한국말로 환영인사를 한 다음 산으로 끌고 다니면서 古墳들을 열심히 보여 주었다. 산천은 어쩌나 한국을 닮았는지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었다. 소나무, 대나무, 杉(스기)가 우거진 산에는 단풍이 시작인 것 같았다. 평(高麗雉子)이 많고 몇백마리밖에 안남았는다고 對馬州馬는 제주도 조랑말을 닮았다.

점심을 먹으러 嚴原(이즈하라)로 내려왔다. 옛날 한국과 무역을 하던 항구이고 인구 2만의 초라한 도시다. 좁은 골목길을 누비는데 사무라이집 돌담이 제주도의 돌담을 연상케 했다. 「西海」식당에도 태극기를 붙여 놓고 「어서 오십시오」라고 써 있어 고마웠다. 메밀국수와 오징어(이까)회를 배불리 먹었다. 푸짐하게 주는 것까지 한국식이다.

제일 높은 산은 519m의 白嶽인데 上見坂展望臺에 올라 뿌연 부산쪽을 바라 보았다. 안내하던 高雄씨가 『한국분들이 오시니 하늘이 비를 내리는가보다』 해서 영문 몰라 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었다. 바로 저 앞바다에서 1945년 9월 2×일 한국사람 26명이 귀국선에 타고 가다 태풍을 만나 죽었다는 것이다. 앞에 있던 나에게 마이크를 건네며 默禱(모꾸도)를 청

하기에 내 인도로 일행은 잠시 목념을 했다. 한 말에 對馬에 잠혀온 崔益鉉이 올라 고국을 향해 울부짖었다는 산필도 지나쳤다.

宗家 역대 蕃主 일족의 묘석이 모여 있는 萬松院을 돌아보고 對馬歷史民俗資料館으로 갔다. 문의한이 보기에 그 곳에 있는 유물의 대부분이 한국 것임을 금방 할 수 있었다. 백제, 신라, 고려에서 간 불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金田城은 백제식 산성이다. 宗家文書 書庫에는 한글로 된 책마저 보였다. 한국 학자들이 가서 연구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일행은 아쉬움을 남긴 채 壹岐(이끼)로 가는 관광페리에 올랐다. 高雄씨는 배를 타는 우리에게 5색 테이프를 나누어 주었다. 그는 높은 배의 난간에서 늘어뜨린 테이프를 모아서 손에 쥐고 있었다. 이윽고 배가 떠나자 테이프가 하나 들 끊어져갔다. 끊어진 테이프가 휘날리는 뒤로손을 흔드는 그의 모습이 멀리 보였다. 훈훈한 對馬 인심이 마냥 고맙기만 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이별이었다.

천명을 실는 큰 배 안에서 혼련에서 돌아오는 듯한 自衛隊 병사들이 모여 자고 있었다. 파도가 거칠다는 玄海灘은 그날 따라 잔잔했다. 두 시간 걸려 배는 어두워진 郷の浦(고노우라)에 닿았다. 壹岐의 수도라 할 수 있는 항구 도시였다. 壹岐觀光호텔에 들었다. 좀 촌스럽기는 해도 和洋 절충식이었고 바다가 보이는 곳에 있었다.

다다미방에 저녁을 차려 놓아 모두 모였다. 일본 사람들은 유카다와 하오리를 입고 나왔다. 부인네들이 6명이나 끼었다. 正裝한 우리들을 연사라고 상좌에 모셨다. 방어회, 전골에 유명한 壹岐燒酒(소주)가 나왔다. 보리를 재료로 한 증류주로 맛이 일품이었다. 옛날 안동 소주가 생각났다. 九州 사람들은 本州에는 별로 없는 소주를 즐긴다. 이것도 한국의 영향일까? 같은 소주라도 곳에 따라 재료가 달라 高知(고지), 山口(야마구찌), 熊本(쿠마모토)로 고은 소주가 각각 다른 풍미를 자랑하고 있었다. 일본 사람들은 水割(미즈와리)라고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는데 나는 스트레이트로 한국식이었다. 교포 김선생

의 통역으로 일본회원들과 토론을 하며 몇병인지 기분 좋게 마셨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섬 1주 관광에 나섰다. 태평양전쟁 때 한 팔을 잃었다는 안내인은 실재 없이 떠들어대는데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壹岐는 4방 백리가 넘는 큰 섬이었다. 제일 높은 산이라야 겨우 21.3m, 평지가 많고 길이 좋았다. 해안은 굴곡이 심하고 아름다웠다. 한국 냄새가 물씬 나는 對馬와는 대조적으로 壹岐는 일본색이 완연했다. 생물상도 九州와 가깝다고 한다.

壹岐에 흩어져 있는 약 2백기의 고분에서 대표적인 것을 보러 다녔다. 安國寺에서는 高麗版大般若經이 보관되어 있었는데 1년에 한번만 공개한다 해서 못보았다. 어느 산기슭에 돌이 몇개 놓여 있는데 「遣新羅使の墓」란 패말이 붙어 있었다. 그 옛날 신라에 가는 사절로 뽑혔다가 가지도 못하고 병사한 사람의 무덤이라 하면서 안내인은 보통 관광코스에는 들어 있지 않은 곳이라고 주를 달았다. 壹岐郷土館에는 500만년전 코끼리의 뼈가 맞추어져 있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金天閣에서 壹岐명물 우니메시(성게밥)를 맛있게 먹고 博多(하카다)행 쾌속열차를 탔다. 1시간 50분 걸려 博多항에 올랐다. 13세기에 고려와 함께 몽고군(元寇)이 일본을 침공했다가 태풍을 만나 실패한 곳이다. 당시 일본은 살아서 상륙한 적군 가운데 몽고사람들은 돌려 보냈지만 고려 사람은 모조리 목을 베었다 한다. 우리는 이제 朝鮮通信使가 간 길을 따라 對馬에서 九州까지 온 것이다. 對馬國에서 一支國을 거쳐 奴國으로 말이다.

11월 9일 아침 아내와 나는 훌가분한 차림으로 博多역에서 長崎(나가사키)행 열차를 탔다. 연도의 농촌경관은 한국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다. 경지정리도 잘 안 된 채였다. 일본식 목조집이 유달리 눈에 띄었다. 산은 질푸르렀고 들에는 감나무, 골나무가 아주 많았다. 佐賀(사가), 山口(야마구찌)를 거쳐 3시간 걸려 長崎역에 내렸다.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고 허둥지둥 관광버스에 올랐다.

비를 맞으며 맨처음 찾은 곳은 平和公園이었다. 그 안에 거대한 平和紀念像이 있었다. 원자폭탄 투하 10주년기념일에 長崎시민의 세계평화의 염원을 모아 제막한 것이다. 부처의 자비를 상징한다고도 하고 위로 향한 오른손은 원자폭탄의 위험을, 수평으로 뻗은 왼손은 평화를 나타낸다고도 한다. 이어 원폭낙하중심지 옆 國際文化館안에 있는 原爆資料館으로 갔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상이 사진과 유물로 거기에 있었다. 폐허로 화한 시가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시체들, 문 한쪽 기둥만 남은 神社…… 인간은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인간이 인간에게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죄! 1945년 8월 9일 11시 2분 長崎 상공 500m에서 폭발한 원자폭탄은 7만명을 죽였고 7만 7천명을 다치게 했다.

수학여행은 학생들 틈에 끼여 쫓기듯이 빨리 보고 나왔지만 머리 속은 착잡했다. 원폭투하 두달 뒤 長崎에 내려 폐허 위에서 과학과 인간의 가치를 생각했다는 브로노우스키를 그려 보았다. 우리가 녹아 엉겨 만들어진 희한한 추상 조각 작품에 전율하면서도 폭심에서 5백m 떨어진 데 있었다는 신라종이 말짱하게 남아 있는 것은 신기하기만 했다. 시내에서는 원폭의 흔적이 전혀 눈에 띄지 않았다. 長崎가 높은 산으로 둘러 싸였기 망정이지 평지였다면 피해는 훨씬 으리라는 얘기다. 중학교때 읽은 永井(나가이)隆의 「長崎の鐘」이 생각나서 기념품 〈長崎の鐘〉을 샀다.

1571년 開港한 長崎는 포르투갈,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통해서 양문물을 받아들인 곳이다. 그곳은 德川(도쿠가와)幕府쇄국시대가 시작된 1638년 이후 서양에 대한 유일한 창구였고 여기서 발달한 蘭學(랑가쿠)가 일본근대화의 기초가 되었다. 일찌기 들어온 카톨릭교는 1587년 豊臣秀吉(도요토미)의 切支丹(기리시당) 금지 조로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다. 1597년 처형된 스페인 신부와 일본신도를 기념하는 日本二十六聖人殉教地가 있다.

국보 大浦(오우라)라天主堂은 1865년 프랑스 선교사가 완성한 목조 고딕식건물로 깨끗하게 보

존되어 있었고 원폭 때 깨졌던 浦上(우라카미)天主堂 등 성당이 많았다. 양옥들 사이로 돌로 포장된 길 오란다(자카)(네덜란드 비탈)를 올라 돌아가면 구라바(園)엔이 나온다. 배를 타고 부두를 일주하며 三菱(미쯔비시)造船所와 정박하고 있는 거대한 상선들을 보았다. 다시 찾아와 자세히 보아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島原(시마바라)로 가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곳 특산물 朝鮮鮭(아메, 옛)은 너무나 변질해서 실망했다.

島原에서 배로 三角(미스미)로 건너가 기차로 갈아타고 熊本(구마모토)를 거쳐 阿蘇(아소)에 도착한 것은 저녁 때였다. 일본가정을 보려고 民宿(민슈쿠)를 찾아 하루밤을 쉬고 산으로 올라갔다. 阿蘇는 둘레가 12 m나 되는 複式火山이다. 중턱에서 火山博物館을 보고 五岳 가운데 활화산인 中岳(나카다케)으로 향했다. 기온이 썩 낮았다. 우리 것과 똑같은 따끈한 甘酒(아마자케)로 추위를 달래고 로프웨이(케이블카)로 해발 1323m의 中岳 噴火口에 섰다.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4km의 분화구에서는 하얀 가스 수증기가 뿜어나오고 있었다. 壯觀이었다. 강풍과 우박이 몰아치는 가운데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오는 길에 태평양연안에 있는 別府(베부)에서 1박했다. 水原이 천개나 된다는 이 온천도시는 구멍 난 곳에서는 어디든지 물과 증기가 뿜어나왔다. 鐵輪(간나이)温泉을 중심으로 8개의 地獄(지고꾸)를 구경했다. 시간이 없어 남녀 温湯은 못들어갔지만 세계에 몇군데 없다는 間歇泉은 신비로웠다. 경치가 좋다는 延岡(노베오카), 宮崎쪽을 다음으로 미루고 博多로 돌아왔다.

마지막날은 福岡 가까운 大宰府(다자이후)로 갔다. 부여와 자매결연을 했다는 아담한 전원도시였다. 菅原道眞(스가하라)라는 학자를 모신 神社 天滿宮(덴만구)에는 입학시험 합격을 비는 부적이 요란하게 걸려 있었다. 재미있는 나라다 참쌀떡(梅ヶ枝餅)도 맛보고 유명한 博多人形도 샀다. 福岡시내로 돌아와 大濠(오호리)公園을 거닐면서 九州를 살찌게 한 우리의 선조들을 생각했다. 그들의 발자취를 살피기에 주일은 너무나 짧은 일정이었다. ㄹ